

# KIPA NEWS



## 우리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리회(부회장 최종협)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이원영)과 지난 8월 30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회의실에서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과학기술 영재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기도 기업, 대학, 연구소 대상 특허기술평가·거래 및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 확산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경기도 산학연을 연계·활용하는 과학교육·발명진흥 신규 프로그램 기획,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 교류 및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이 지난해 10월 특허지원 프로그램 설명회(경기과기원 주관)와 우수발명품 전시회 및 발명과학교실을 공동추진하며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력 필요성을 인식한 데서 비롯됐다.

최종협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의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두 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며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지식재산권의 대국민 인식 제고는 물론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원로 발명인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 발명계를 이끈 원로 발명인들 한자리에 모여



○ 리회는 지난 8월 31일, 역삼동에 위치한 중식당 루안에서 「원로 발명인 간담회」를 열었다.

원로 발명인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변경삼·신석균·원인호·서건희·하상남·최진순·박인호·정선영 등 대한민국 발명계를 이끈 원로 발명인 24명이 참석했다.

원로 발명인들은 대한민국 발명계의 발전방안 및 우리회의 발명진흥 정책 수립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원인호 한국발명원장은 “이 모임은 발명사 증인들의 모임입니다”며 이 자리를 마련한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에 박수를 전했고, 신석균 한국신발명연구소장은 “원로 발명인들이 발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며 당부를 전했다.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은 “원로 발명인 여러분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 대한민국 발명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발명계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더욱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KIPA NEWS



## 우리회 · 미국 특허청 지식재산권 교육 상호협력 MOU 체결

미국 특허청과 우리회가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교육분야 등에 협력키로 했다.

○ 리회 최종협 부회장은 지난 8월 11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 특허청을 방문하여 앨버트 트램포시 대외협력실장을 만나, 지식재산권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상호 정보 교환 및 공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협력 MOU에 서명하였다.

이 자리에는 제임스 하우셀 미국 특허청 연수원장, 권규우 주미한국대사관 특허관, 이택수 LRK 특허 로펌 대표, 우리회 한정무 교육기획팀장 등이 함께 자리하였다.

## 도전!! 대한민국 창의력 챔피언!

시·도 예선대회를 통과한  
초·중·고등학교 100개 팀 참가



○ 리회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11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본선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허청과 삼성전자가 공동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시·도 예선대회를 통과한 초·중·고등학교 100개 팀(7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 분야별 대상 수상자로는 도전과제 1분야에 고등부 'ARK7' 팀(서울 지역연합), 중등부 '아이다운' 팀(서울 지역연합), 초등부 '한솔' 팀(제주지역 연합)이 선정됐다.

또 도전과제 2분야에는 고등부 'OK! Babe' 팀(경기 지역연합), 중등부 '스' 팀(전북 지역연합), 초등부 '오아시스' 팀(경기 지역연합)이, 도전과제 3분야에는 고등부 '그레아레' 팀(경기 성남서고), 중등부 'Brain' 팀(대구 지역연합), 초등부 '무한소수' 팀(부산 지역연합)이 선정됐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는 민간 부문의 수요에 맞춘 창의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왔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 제1기 최고 지식재산 경영자 과정 'CIPO Academy' 성황리 개최

○ 리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지난 3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5개월간 '제1기 최고 지식재산 경영자 과정(CIPO Academy : 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 Academy)' 을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지난 8월 26일에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제1기 CIPO Academy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과정은 국회의원, 정부부처 고위공무원(판사 등), 대기업 임원(삼성전자, LG전자, KT 등), 중소기업 대표(살롬엔지니어링, 영국전자 등), 변호사 및 변리사, 기타 국책연구소 등 37명의 수강생들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분야별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여 IP 현안에 대한 전략적 시각을 제공하는 등 교육생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협 부회장은 "이번 과정이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줄 아는 지식재산 경영자 확보 등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회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2011년도 9월부터 제2기 CIPO Academy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과정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교육기획팀, 02-3459-2767, yongji@kipa.org)

## 2011 대학 교수 여름 T3 (Teaching the Teachers) 개최

전국 75명 교수들(35개 대학)  
높은 학구열 보여



○ 리회는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컨벤션스타호텔에서 '2011 대학 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T3 프로그램' 을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75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이번 T3 프로그램은 교육과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T3 프로그램은, 전국 대학 교수들의 특허역량 강화와 중장기적 대학별 지식재산 강좌의 자립화를 위해, 우리회에서 2008년부터 운영해온 교수 대상 지식재산 교육 과정이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T3 프로그램은 특허정보조사·분석 과정 및 강한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작성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이론 수업에서 탈피하여 사례와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 교수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허청 우종균 국장은 참여 교수들에게, T3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 지식 산업의 주역인 훌륭한 인재 양성에 힘써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우리회는 10월 중, 지식재산 사례연구 과정 및 특허기술 가치평가 과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12월 중, 대학에서 지식재산을 강의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마스터 과정(IP 교수법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